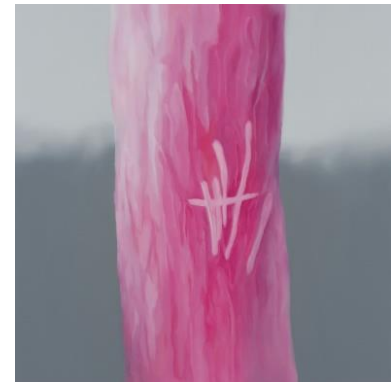


정 철 규

Jung Choul Gue

2016-2017 도망가는 밤

2017-2018 귀를 보고 하는 말



나의 작업(그림)에는 보이지 않는 곳, 혹은 너무나 잘 보이지만 관심 밖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사회 속에서 소위 언더이자 아웃사이더라고 일컫는 자들의 모습과 감정들로 채워진다.

이들이 발 딛고 서 있는 풍경은 지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달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 곳일 수 있다.

즉 그들이 가고자 하는, 머물고자 하는 풍경은 삶에 있어서 퇴행이거나 일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이자 장면이며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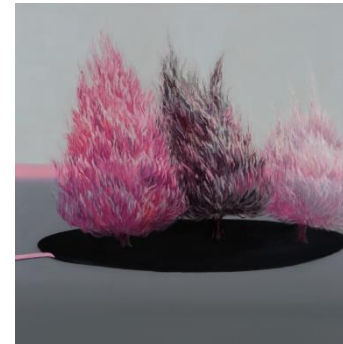
그렇기에 작품 속 이미지는 몽환적인 성격을 가진다.

파편적으로 느껴지는 서정성,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면, 혼종적인 이미지들은 모호함으로 다가간다.

이미지는 주체를 말하려는 무의식의 구조이며, 이미지를 통해 타자의 욕망이 조직되고 동시에 주체의 욕망이 구성되도록 강제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대타자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임과 동시에 자아를 주체로 태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곧 그림 속 이미지들을 스스로 관망하는 것은 타자의 시선으로 보는 응시인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환영이 개입된다.

자기반성, 자기비판, 자기거부의 순수성을 믿고 있는 주체가 마치 거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반사의 완벽함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지는 환영이다.



나는 일기를 쓰지 않고, 편지를 쓰려한다.

일기는 자기 성찰의 글쓰기다.

자기를 성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기에서는 환영을 부쉬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일기에서는 진실에 접근하기 힘들고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보여주기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래서 편지를 쓰려한다.

꼭꼭 눌러쓴 편지에는 정성을 담아 진심을 전한다는

다소 낭만적 인상을 담을 수 있다.

그래서 일기보다 편지가 “고백”이라는 것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간직된다. 간직된 편지는 부쳐지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가치를 부여 받게 되고, 이러한 역설은 편지에 더 중요하고 더 진실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한다.

양면적 모습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원초적 아버지의 신화에서 오이디푸스적 아버지의 두 형상을 제시한다고 했다. 아이의 욕망을 법에 종속시키는 아버지가 주체의 욕망을 규제하는 상징적 구조로서의 초자아라면, 절대적 힘으로 모든 여자와 부를 차지하는 폭력적이고 방탕한 아버지 또한 초자아의 기능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설적 초자아의 지배는 ‘도덕’이라는 가면을 챙겨 들고 여론의 심판을 빌미로 삼아 사디즘적 충동을 표출하며 강박적으로 누리는 자들의 대중적 만연을 통해서 드러난다.

금지가 강해질수록, 금지마저 금지가 될수록, 우리는 욕망의 법을 따르지 못한 자아를 구속하고, 비난하는 초자아의 힘은 커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웃고 즐기고 소리치며 얼마든지

잔혹하고 파괴적인 끔찍한 자가 될 수 있다.

아침이 될 때 까지만.

이름을 의심 받으면서 사는 자들,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이 모이는 밤. 그 밤은 불 꺼지지 않는다. 아니 불 꺼뜨리지 않기 위해 그토록 참았던 것들을 발산하려고 모여든다. 그들은 밤을 찾아 도망쳐 왔고, 도망쳐온 밤을 다시 도망가기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러다 밤이 도망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다시 아침이 되는 것을 지연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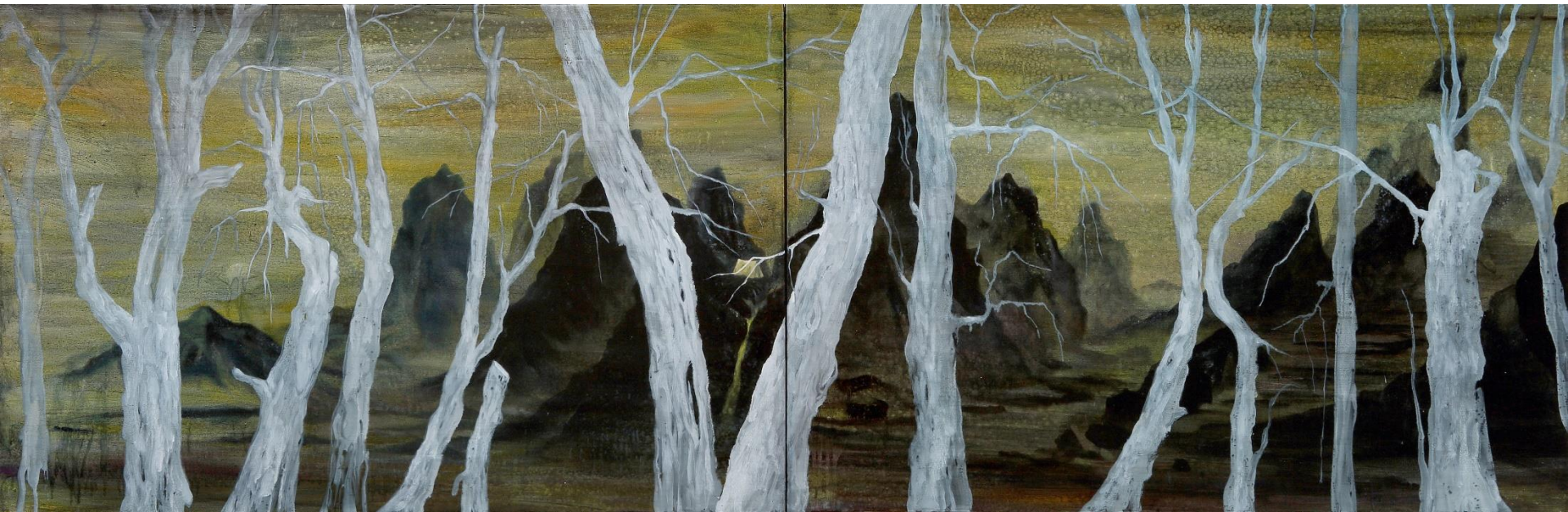
주류의 포장도로를 달리던 그들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들에게 무엇 일까?’를 끊임없이 묻는 자임과 동시에 자신의 욕망에 도달하기 위해 동일화해야 할 주체의 위치를 잡지 못하는 ‘밤’속에 자리 잡은 자들이다. 그들 속에 내가 속해있고, 그래서 그들이 겪는, 혹은 내가 겪고 있는 모습을 담담하게 담아내려고 한다. 주류의 세계에서 가면이라는 필수품을 들고 율타리를 쳐야 숨 쉴 수 있었던 그대들이 속한 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기 위해, 과도한 가치가 생겨버린 부치지 않았던 편지를 부치기 위해 도망가는 밤은 계속된다.



이름을 지우고 모이는 자리, 162x336cm, , oil on canvas, 2016



길지 않은 꿈 속에서, 130x194cm, , oil on canvas, 2016



종착역이 없는 이들, 65x200cm, oil on canvas, 2016



도망가는 밤, 80x173cm, oil on canvas, 2016



매일 가고 싶은 숲, 80x173cm, oil on canvas, 2016



톡톡 몸서리치는데, 28.5x28.5cm, oil on canvas. 2016



들락날락, 33x24.5cm, oil on canvas, 2016



이제 찬 눈이 녹을 거라고, 150x150cm, oil on canvas, 2016



두리번, 두리번, 마음으로 불러 준 적 없는, 163x130cm, oil on canvas, 2016



저기 혹시 여기, 65x100cm, oil on canvas, 2016



새로 생긴 섬, 161.5x227cm, oil on canvas, 2017

“실패한 사람들은 오직 과거를 읊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기도 한다.
아직 실패까지 오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서,
영원히 실패할 삶을 위해. 이것은 비평이 아니다.
이것은 시간을 죽일 때까지 시간과 싸우는 마음이 마을인 사람들을 베끼
이야기에 불과하다”

언젠가 나의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위와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실패로 태어나, 어느새 실패를 망각하면서, 실패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실패 속에서 살아가고, 어디에 있든 실패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실패를 벗어나려 하지만, 실패의 밖이 존재하지 않는
그 실패의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린다.
오늘도 실패를 했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실패담을 읊조리고 있다.
실패는 처절한 고독이며 결국 실패를 보여주는데 실패하고 마는
굴레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혼자 말로 질주를 하고 있다.
이 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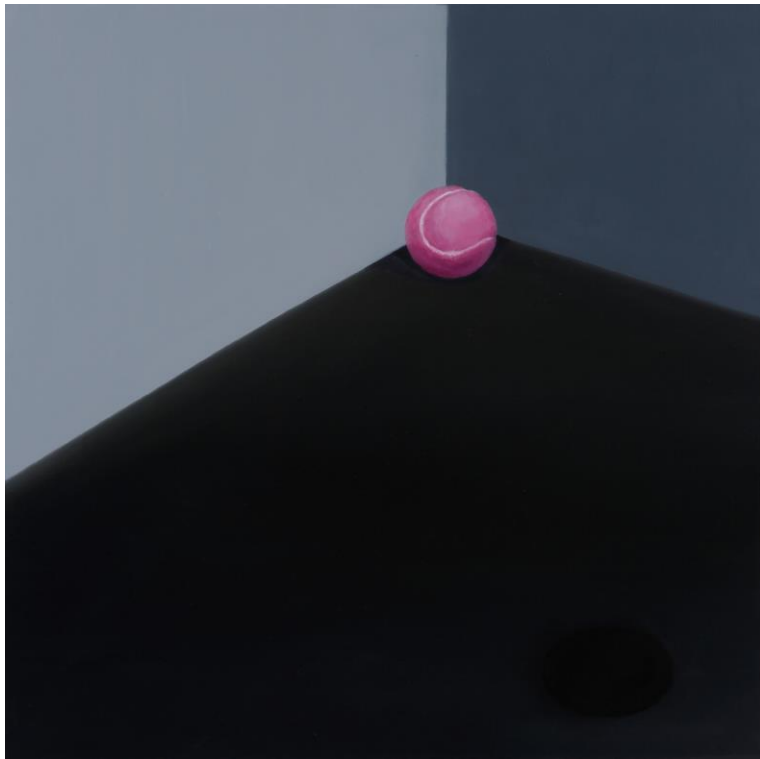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답장도 오지 않는 이 밤의 실패담을 누군가의
귀를 향해 계속해서 외친다.
실패담은 여러 컷의 부서진 씬(scene, 장면)들 속에서 처음도 끝도 없이,
원인도 결과도 없이 불쑥 솟아오른 것처럼, 선형적인 서사 위에 가지런히
정렬된 장면이 아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칠흑 같은 이 밤의 장면에는 '낮'의 선명하고
날카로운 잣대와 규칙, 질서로부터 조금은 떨어진, 혹은 뛰쳐나온 자들의
스스로를 열정적으로 위로하는 소리가 베여있다.

<도망가는 밤>에서 '밤의 숲'이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불안한 욕망을
울부짖었다면, 이번 <귀를 보고 하는 말>에서는 '밤'이라는
실패의 장막 속에서 더 없이 공허해 질 때까지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변두리의 씬(scene, 장면)들로 조금은 나지막하게
외치고 있다.

낮익었던 것들이 낯설게 다가오고, 때로는 불편하고, 투명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이 밤에 실패를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차례차례 무너져
끝내는 그 모든 것들의 자리가 실은 변두리였다는 것을...

이 밤,
변두리에서 애통하며 실패를 일삼는 자에게는
그 애통함이 힘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제 눈은 가리고 밤이라는 방패를 무기 삼아 발산하는,
매일 매일 실패하는 자들이 반복해서 읊조리는 실패담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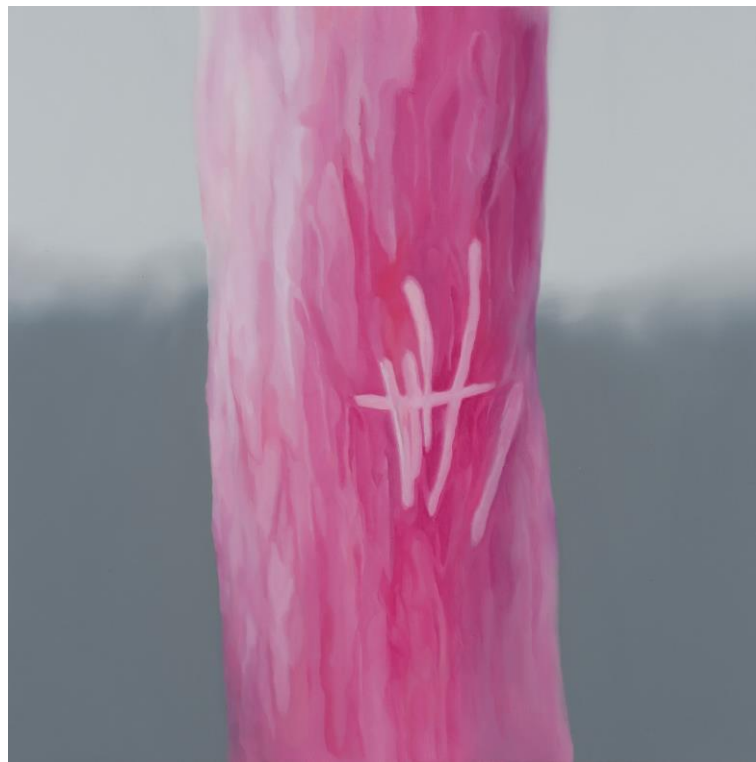
두 번째 월요일, 50x50cm, oil on canvas, 2018



답장이 왔다, 50x50cm, oil on canvas, 2018



세 개의 섬, 50x50cm, oil on canva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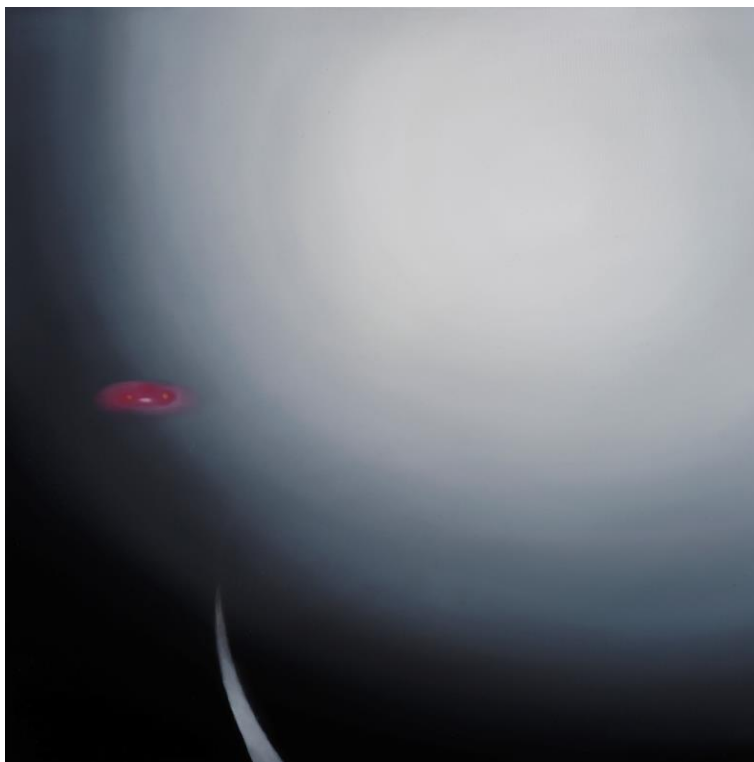
칠 년째 되던 해, 50x50cm, oil on canva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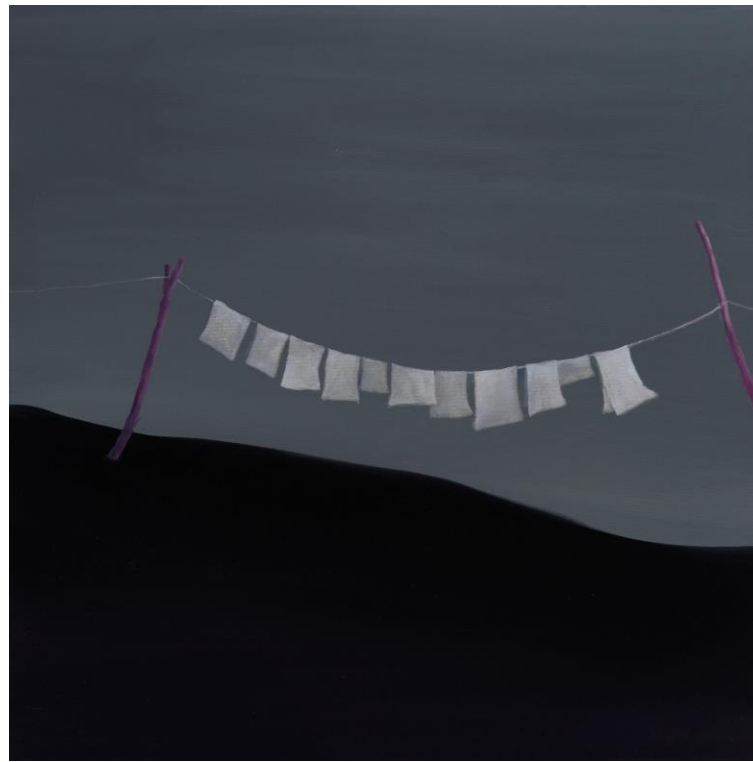
몇 분 안에, 50x50cm, oil on canva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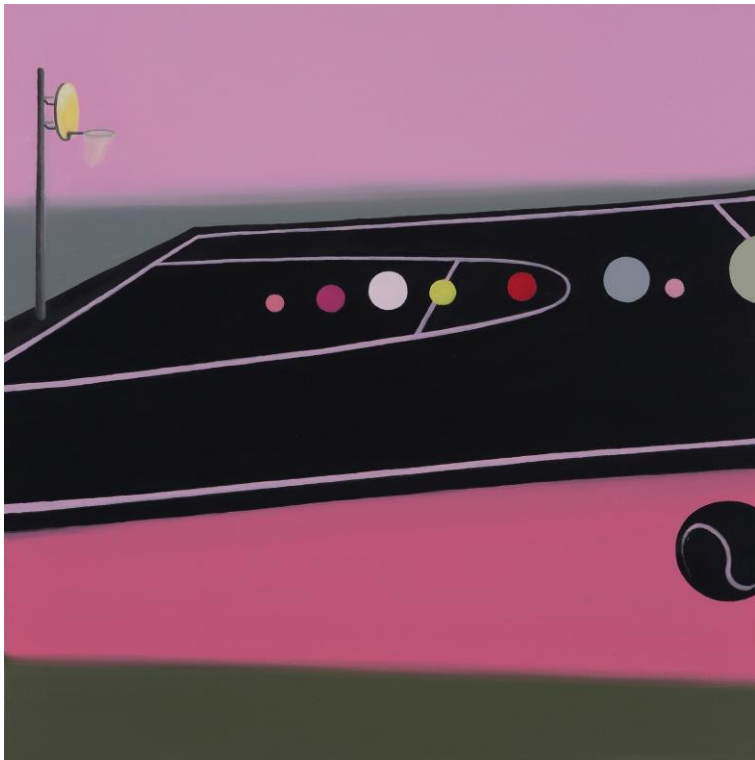
열 개의 돌맹이, 50x50cm, oil on canva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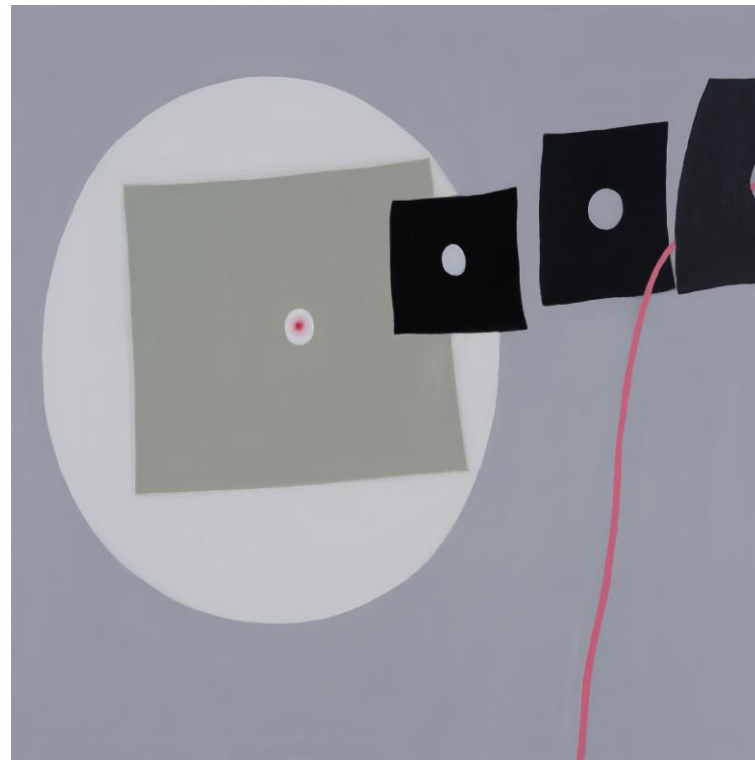
이 모든 운곽이 사라지면, 50x50cm, oil on canvas, 2017



나뭇가지가 잡아줄 수 있을까,
50x50cm, oil on canvas, 2017



12시에 OO공원에서 만나요. 50x50cm, oil on canvas, 2017



그림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50x50cm, oil on canvas, 2017



독이 담긴 거짓말, 50x50cm, oil on canvas, 2017



아침이 될 때인지 밤이 될 때인지,
50x50cm, oil on canvas, 2017



귀를 보고 하는 말, 91x116cm, oil on canvas, 2018

정 철 규

Jung Choul Gue